

##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 분류 연구\*

전영옥

### <차 례>

1. 머리말
2. 감탄사의 범주적 특징
3.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
4. 맺음말

### 1. 머리말

이 연구에서는 감탄사의 의미·기능을 바탕으로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을 분류하겠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입버릇이나 머뭇거림의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구분은 개별 감탄사에 대한 의미·기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말뭉치에 나타난 감탄사의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유형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A00359)

1) 이는 남기심·고영근(1985, 1993)의 분류이지만, 학교 문법 혹은 규범 문법에서 사용되고 있어 대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 분류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남기심·고영근(1993)과 신지연(2001)이 있다. 남기심·고영근(1993: 180~183)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특별한 단어에 의지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라고 하며,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감탄사,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의지 감탄사, 특별한 뜻 없이 나는 입버릇 및 더듬거림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신지연(2001)에서는 감탄사를 크게 느낌을 나타내는 것(감정적 감탄사)과 세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의지적 감탄사)으로 구분을 하고, 전자가 청자를 상정하지 않은 단독적 장면에서 발화되는 데 반해 후자는 청자를 상정해야 하는 상관적 장면에서 발화된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감정 감탄사는 [처음앓]의 의미에 의해 다시 구분하고, 의지적 감탄사는 명령적 의미를 갖는 것, 부르거나 대답하는 소리, 문장의 처음이나 중간에 머뭇거리는 소리 등으로 구분하였다.

감탄사가 구어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말이고, 상황에 의존하여 의미가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기심·고영근(1993)과 신지연(2001)에서 나타난 청자 상정 유무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감탄사의 연구를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연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로 감탄사는 구어에서 주로 나타나 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하나의 감탄사가 하나의 의미·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나타난 것으로 감탄사의 의미·기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곧 화자의 감탄을 드러내는 ‘아’는 실제 상황에서 청자의 발화에 대하여 반응 발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감탄사 ‘아’는 화자의 느낌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감탄사 목록을 추출하여 이들의 말뭉치에서의 쓰임을 살펴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 2. 감탄사의 범주적 특징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감탄사의 범주에는 감탄과는 관련이 없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남기심·고영근(1993: 180)에서는 감탄사는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특별한 단어에 의지함이 없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품사라고 하였고, 신지연(2001: 245)에서는 품사 분류의 근거가 마치 감정 표현이라는 의미적 특성에 기반한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이른 시기의 국내외 연구들에서도 감탄사가 문장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점이 범주화의 근거로 내세워지고 있다고 하였다. 오승신(2006: 408)에서는 감탄사를 문장 안의 다른 단어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아우르는 품사라고 하였다. 곧 앞선 연구에서 감탄사는 ‘화자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나타낸 말’이라는 것보다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점’이 범주의 특징으로 드러난다.<sup>2)</sup>

감탄사의 범주적 특징이 독립성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감탄사를 범주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감탄사에 속하는 단어가 명사, 대명사, 부사, 관형사 등으로 쓰이는 것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는 의미적인 측면도 있고 문법적인 측면도 있다.<sup>3)</sup>

2) 감탄사의 품사적 특징으로 남기심·고영근(199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감탄사는 그 자체만으로 화자의 감정과 의지가 표현될 수 있어 다음에 다른 말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독립된 문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② 감탄사는 독립어로 문장의 처음에는 물론, 문장의 가운데와 끝으로 그 자리를 자유로 옮길 수 있다. ③ 감탄사는 일정한 어조가 결부되거나 얼굴 표정이나 손짓이 동반되기 때문에 구어체에 많이 쓰인다. ④ 감탄사도 관형사, 부사처럼 활용하지 않는다. ⑤ 감탄사에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 오승신(2006)에서는 품사 기준에서 본 감탄사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① 기능적인 측면에서 감탄사는 문장 성분으로서 독립어이다. ② 형태적 특징으로 감탄사는 일부 존대를 드러내는 ‘여보세요, 여봐라, 여보, 여보시오, 거봐, 거보라, 거보시오’ 등을 제외하고는 활용이나 파생을 하지 않는다. ③ 의미적 특징으로 감탄사는 개념을 나타내지 않고 그 자체로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며 발화 당시의 화자의 내면 상태나 정신 작용을 표출하거나 화자의 뜻을 전달하는 데에 관례적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표 1〉 다른 품사와의 관련(1)

표제어	품사	뜻풀이	예문
참	명사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참을 추구하다.
	부사	=참으로.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과연.	참 경치가 좋다.
	감탄사	잊고 있었거나 별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소리./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내는 소리./감회가 새롭거나 조금 감탄스러울 때 나오는 소리./매우 귀찮을 때 내는 소리.	이것 참! 야단났군./참, 그비 한번 정말 시원하게 온다.
가만	부사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말 없이./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손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마음을 가다듬어 곰곰이/말없이 찬찬히.	아픈 몸 자꾸 움직이지 말고 가만 누워 있어라./그런 모욕을 받는다면 나도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야.
	감탄사	남의 말이나 행동을 막을 때 쓰는 말.	가만, 저게 무슨 소리지?/가만, 내 말 좀 들어 봐.

‘참’은 명사, 부사, 감탄사로 쓰인다.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인 명사와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과연’의 뜻을 가진 ‘부사’는 의미적인 차이보다는 문장에서의 역할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이에 반해 감탄사는 명사와 부사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물론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가만’의 경우도 부사로서의 의미가 감탄사로서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감탄사가 다른 품사와 구분되는 데는 문법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의미적 속성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이에 대해 남기심·고영근(1993)에서는 품사 통용으로 설명하고, 오승신(2006)에서는 품사 전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문기(2011)에서는 감탄사를 화용론적인 단위로 보고 형태·통사·의미론적인 단위인 품사 범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감탄사를 부사나 명사 혹은 문장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2〉 다른 품사와의 관련(2)

표제어	품사	뜻풀이	예문
앞에-총 (--銃)	명사	제식 훈련에서, 총을 정면으로 세워 들고 차렷 자세를 취하라는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앞에총을 하라는 구령이 떨어 지다.
	감탄사	제식 훈련에서, 총을 정면으로 세워 들고 차렷 자세를 취하라는 구령.	중대장이 “앞에총!” 하자 군 인들은 일제히 총을 정면으 로 세워 들었다.
형부(兄夫)	명사	언니의 남편을 이르는 말.	내 조카는 언니와 형부를 조 금씩 다 닮았다.
	감탄사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말.	형부, 언니랑 언제 한번 놀 러 오세요
거시기	대명사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 리키는 대명사.	저기 안방에 거시기 좀 있어 요?
	감탄사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 리.	저, 거시기, 죄송합니다만, 제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 까?
앙	부사	어린이가 우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아기가 앙 울기 시작한다.
	감탄사	남을 놀라게 하려고 할 때 내는 소리	앙, 놀랐지?

‘앞에총’과 같은 군사 용어에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명사로, ‘구령’일 때는 감탄사로 처리하고 있고, ‘형부’는 사람을 이르는 말일 때는 명사로, 부르는 말일 때는 감탄사로 처리하고 있다. ‘거시기’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는 대명사로, 군소리로 사용될 때는 감탄사이다. ‘앙’의 경우는 우는 소리는 부사이고, 놀라게 하려는 소리는 감탄사로 처리가 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감탄사는 통용되는 다른 품사와 기본 의미는 유사하면서 구령, 부르는 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명사, 대명사, 부사로 쓰일 때는 문장의 한 성분으로 역할을 하는 반면에 감탄사로 쓰일 때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고 있다.

〈표 3〉 다른 품사와의 관련(3)

표제어	품사	뜻풀이	예문
만세	감탄사·명사	바람이나 경축, 환호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소리.	대한 독립 만세!/대한민국 만세!    만세 소리/만세를 부른다.
난장맛을	감탄사·관형사	난장을 맛을 만하다는 뜻으로, 몹시 못마땅할 때 욕으로 하는 말.	난장맛을 놔    이런 난장맛을! 날씨는 또 왜 이렇게 후덥지근한 거야.

〈표 3〉에 제시한 감탄사는 명사나 관형사로도 쓰이는데, 품사의 차이에 따른 의미 차이가 없다. 다만 제시되어 있는 예를 보면 독립어로서 사용이 되느냐 아니냐로 구분되어 있다. 곧 ‘만세!’와 같이 독립적으로 쓰인 경우는 감탄사로, ‘만세를 부른다’와 같이 문장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는 명사로 본 것이다.

다른 품사와 통용되는 감탄사를 살펴보았을 때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점이 모든 예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감탄사가 다른 품사와는 다른 의미적 차이를 가지는 경우도 많아 감탄사의 범주적 특성으로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의 단어가 원래의 어휘 의미에서 확장하여 담화에서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될 때 감탄사의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의 의미를 가진 명사 ‘참’은 담화에서 ‘잇고 있었거나 별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소리, 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내는 소리, 감회가 새롭거나 조금 감탄스러울 때 나오는 소리’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감탄사가 된다.

그동안 독립어로서의 특성을 강조한 ‘간투사’라는 용어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지만<sup>4)</sup> 품사 명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탄사가 계속 사용되어

4) 주시경 문법에서는 감탄사를 ‘놀’이라 하였고, 최현배(1971: 605)에서는 ‘느낌씨’라고 하였으며, 남기심·고영근(1985, 1993: 180~181)에서는 ‘감탄사’를 사용하였고, 정인승(1956), 신지연(1988), 오승신(1997), 이정애(2011) 등에서는 ‘간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간투사(interjection)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Ameka(1992)와 Kryk(1992)의 연구

오고 있다. 그 이유가 실제 사용과 관련 있을 듯하여 말뭉치에서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보았다. 앞선 연구의 구분에 따라 감정적 감탄사, 의지적 감탄사, 형식적 감탄사로 나누어 실현 빈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말뭉치는 2007년에 배포한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에 있는 형태소 주석 말뭉치이다. 문어 말뭉치는 111파일 3,293,793어절을 사용하였고, 준구어 말뭉치는 47파일 2,089,561어절 사용하였고, 구어 말뭉치는 200파일 805,646어절을 사용하여 전체 358파일, 6,189,000어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4〉 말뭉치에 나타난 감탄사의 유형과 실현 빈도

구분	유형 수	비율	빈도수	비율
감정적 감탄사류	575	71.4%	34,296	45.5%
의지적 감탄사류	166	20.6%	22,679	30.1%
형식적 감탄사류	64	8.0%	18,475	24.5%
합계	805	100.0%	75,450	100.0%

이를 보면 소위 감정적 감탄사류의 유형 수가 의지적 감탄사나 형식적 감탄사에 비해 월등히 많고 그 사용 빈도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감탄사가 독립어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품사인데도 불구하고 감탄사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에는 일상생활에서 감정적 감탄사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감탄사는 상황에 의해 의미가 획득되는 화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5)</sup>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의미만으로도 실제로 감탄사의 화용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가 있고, 용어에 대해서는 오승신(2006)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5) 신지연(2011: 249)에서는 ‘아’의 의미는 ‘아, 기쁘다’와 ‘아, 슬프다’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 자체가 기쁨과 슬픔을 나타낸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여 감탄사가 화용상의 단어임을 설명하였고, 김문기(2011)에서는 감탄사를 형태·통사·의미론적 단위가 아니라 화용론적인 단위라고 하였다.

(1) 그래(표준국어대사전)

- 「1」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말. 해라할 자리에 쓴다. (예) 응, 그래./그래,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가 봐.
- 「2」 상대방의 말에 대한 감탄이나 가벼운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 해라할 자리에 쓴다. (예) 그래? 그 말은 처음 듣는데!/그래? 그것 참 잘됐다.
- 「3」 다잡아 묻거나 강조할 때 쓰는 말. 주로 의문문에서 삽입어로 쓴다. (예) 내가, 그래, 아무러면 그 사람에게 지겠니?/이 상황에서, 그래, 놀러 가자는 말이 나오니?

(1)에 제시된 ‘그래’는 가벼운 감탄이나 놀라움을 드러내는 것, 긍정의 대답으로 쓰이는 것, 강조할 때 쓰는 것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쓰이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실제 말뭉치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2) 어(표준국어대사전)

- 「1」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나오는 소리. (예) 어! 서류를 택시에 두고 내렸네./어, 이러다가 차 놓치겠다./어, 그 물건 빨리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어, 이거 왜 생사람을 끌고 들어가.
- 「2」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내는 소리. (예) 어, 반갑네./어, 정말 잘했군./어, 시원하다./어,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게 해야지.
- 「3」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내는 소리. (예) 어, 여기야./어, 저것 좀 봐./어, 나 좀 보게./어, 여기 좀 보세요.

- (3) 7.1 : 그래 남들이 보기엔 원래 그래, 재담 원래 <@남녀관계라는 게 제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Q진짜 썸썸하고 있네 저 미친 것들Q> 이러는데.@>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2 : 그래?

1 : 어.

ㄴ. 2 : 아 근데 느낌이,

1 : 어.

2 : 니가 말하는 거랑 재학이 형이 말하는 거랑 확실히 틀려.

아무튼 그랬어.

1 : 어.

사전에서는 ‘어’의 의미를 놀람, 당황, 기쁨, 슬픔 등을 나타낼 때 내는 소리,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의 주의를 끄는 소리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말뭉치에서는 (3ㄱ)에서처럼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긍정의 답을 (3ㄴ)에서처럼 반응 발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영옥(2006 : 122)에서는 ‘어’의 1차 의미를 ‘궁정, 고민, 의문, 반감, 불만, 놀람, 감탄’ 등으로 보고, 이들이 다시 담화상에서 사용되면서 ‘수용, 반응 발화, 대답, 시간 벌기, 동의 요청, 반문, 발화 시작’ 등의 2차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분류에서 하나의 감탄사가 하나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감탄사 유형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특징을 문장에서의 독립성으로 보고, 감탄사가 가지는 의미적·화용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위 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 3.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을 분류한 대표적인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남기심 · 고영근(1993 : 181-183)

① 감정감탄사 :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것.

-기쁨 : 허, 허허, 하, 하하……

-성냄 : 에, 옛, 예끼……

-한숨 : 허, 허허, 후, 후유……

-놀라움 : 아, 애고, 예구머니, 이크, 아따, 저런……

-넋떨어짐, 뉘우침 : 어, 엉, 아빨사, 아차……

② 의지감탄사 : 발화 현장에서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것.

-상대방에서 행동 요구 : 아서라(단념), 자(독려), 여보, 여보세 요, 애, 이봐(부름)……

-대답 : 예, 암, 아무렴, 오냐, 응, 그래, 웁소, 글썄, 아니오, 천만에……

③ 입버릇 및 더듬거림 : 특별한 뜻 없이 나는 소리들

-아무 느낌이나 생각 없이 단순히 입버릇으로 섞어 내는 것 :  
머, 뭐(무어), 그래, 말이지, 말이어, 말ियो, 말입니다……

-말이 열린 안 나올 때 말을 더듬는 모양으로 아무 뜻 없는 소리로 내는 것 : 어, 예, 저, 거시기, 음, 에헴, 애헴……

(5) 신지연(2001 : 255-256)

① 감정적 감탄사 [-청자 상징]

A. [+처음알] a. 아, 아이고, 예그머니, 아참, 저런, 어머니……

b. 피, 흥, 체, 후유……

B. [-처음알] a. 아이(애교), 애개(가소로움), 예끼(쾌심함), 윈(실망)

b. 욕설류

② 의지적 감탄사 [+청자 상징]

A. 부르거나 대답하는 소리 : 여보, 이봐, 애, 야/ 아니오, 글썄, 응, 예

B. 명령적 감탄사 : 자 (이제 갑시다), 쉬 (조용히 하시오), 아서라 (물가에 가면 못쓴다), 에헴……

C. 형식 감탄사 : 음, 저, 뭐, 저기(요), 있잖아(요), 말이야……

위의 감탄사 분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탄사를 청자 상징 유무로 구

분하는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감탄사 유형만 제시를 하고 있어서 가족 관계 호칭, 군대에서의 용어, 동물에게 사용하는 것 등의 다양한 감탄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감탄사가 구어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말이고, 상황에 의존하여 의미가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기심·고영근(1993)과 신지연(2001)에서 나타난 청자 상정 유무에 의한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감탄사의 연구를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연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로 감탄사는 구어에서 주로 나타나 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전영옥(2009)의 연구에서 감탄사는 10만 어절당 문어에서는 0.321어절, 준 구어에서는 1.234어절, 구어에서는 17.484어절 나타나 감탄사가 주로 구어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영옥(2009)에서는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다고 한 감정 감탄사 ‘아’의 경우 신문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되었는지, 대화 상황에서 사용이 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기능이 달라짐을 보였다.<sup>6)</sup>

- (6) 어제 저녁 퇴근하면서 응원하던 곳을 지나치며 ‘내일이면 저곳이 얼마나 지저분할까. 난장판이 되겠구나’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운전하면서 같은 거리를 지나쳤는데 깨끗한 거리가 되어 있었다. “아”하고 감탄이 절로 나왔다. 우리 국민도 선수들 못지않게 깨끗한 플레이를 한 것이다. (신문 기사)

(6)에서 ‘아’는 기자가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청자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 (7) “앞으론 우리 집에서 길어가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줄게.”

6) 아래 (6)에서 (8)까지의 예는 전영옥(2009)에서 제시한 예이다.

“그치만 너희 집은 약수터보다 더 멀잖아.”  
 “아, 맞다 내가 그 생각을 깜박했다.” (소설)

(8) 2 : 삼십 분 뛰었어 오늘도?

1 : 아 뛰진 않았어,

2 : 걸었어 계속?

1 : 아니 중간에 한 삼 분씩 뛰었어. 그러니깐 어제는 이 분 뛰었고  
 시간 조금 늘렸어.

.....

2 : 아닌데, 이 분 칠 분이면 구 분인데?

1 : 아 그렇구나 <vocal desc='웃음'>

2 : <vocal desc='웃음'>

1 : 삼 분 삼 분 칠 분,

2 : 아,

1 :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삼으로 이 분 하다가 오로 삼 분 하고 육  
 으로 오 분을 해, (일상대화)

(7)의 ‘아’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 (8)의 ‘아’ 역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수용, 단순한 반응 발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감정 감탄사 ‘아’는 청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미만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가 문어에서는 10만 어절당 약 6.6어절 나타나고 준구어에서는 58어절 나타나는데 비해 구어에서는 841어절 나타난다(전영옥, 2009 : 256). 곧 감탄사는 청자를 상정한 구어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감탄사를 청자 상정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감탄사는 사용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감탄사에는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구령, 동물이나 아이에게 행동을 유발하는 여러 소리, 가족 관계 호칭, 욕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의 감탄사 유형에서는 이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

다. 이들 유형을 포함한 감탄사 분류는 오승신(2006 : 416~417)에서 나타난다.

〈표 5〉 오승신(2006)의 감탄사 유형 분류

의미적으로 구분		예
화자의 내부 상태나 정신 작용을 표출하는 것	느낌의 표출	아이고, 애개, 어구머니, 어이쿠, 어머니, 쫓쫓, 후유
	인지 작용의 표출	아차, 아참, 아차차, 아하, 아뿔싸, 정말, 참, 옳지
	기원의 표출	만세, 아멘
행동 유발적 감탄사 : 어떤 대상으로부터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욕구와 같은 의미적인 정신 작용	동물의 행동 유발	굽아, 우어, 두두, 구구, 워리, 뒤뒤
	유아의 행동 유발	곤지곤지, 도리도리, 자장자장, 짹짹 짹짹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기 위해 쓰이는 경우	영기차, 어여차, 어기야디야, 어허야어허
청자를 수신자로 하여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 (존대, 비존대 구분)	부름	애, 야, 여보, 여보세요, 이봐
	응답	네(예), 그래, 글썄, 천만에, 아니, 아니요, 암, 오냐 등
	인사	안녕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쓰이는 관례적 표현	알림	게저리게, 무에리수에, 옛단쇠, 홀라
	의식	쉬어. 차려

우선 오승신(2006)에서 제시한 ‘게저리게’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그리고 소에게 굵을 들라는 뜻으로 내는 ‘굽아’와 옛장수가 옛을 사라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인 ‘옛단쇠’는 둘 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의도로 사용한 것인데, 하나는 행동 유발의 감탄사로 하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알림의 감탄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오승신(2006)의 유형에는 욕설이 감탄사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감탄사 목록을 추출하고, 말뭉치에서의 쓰임을 살펴 감탄사를 분류하고자 한다. 사전에 실려 있는 감탄사 가운데 고어, 방언, 비표준어, 북한어, 역사 관련 어휘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였다.<sup>7)</sup> 감탄사는 화자의 여러 의도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

고,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인지 작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청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것,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등으로 분류를 하고,<sup>8)</sup> 그 외의 것은 기타 의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감탄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되어 의미가 고정된 것과 하나의 감탄사가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것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감탄사의 유형 분류

분류 기준			예
드러냄	감정	[-의미 고정]	아, 아유, 아이구...
		[+의미 고정]	노래 에루화, 상사뒤요...
			욕설 난장맞을, 넌장...
			장례 아이고, 애고애고...
			문어체 시호시호, 오흠다...
			뱃사람 어기야, 어기야디야...
	인지	[-의미 고정]	아꺄사, 아차...
		[+의미 고정]	지화자, 브라보...
	기원	[+의미 고정]	아멘, 나무아미타불...
알림		[-의미 고정]	애험, 예험...
		[+의미 고정]	곤두곤두, 오버...
행동 유발		[-의미 고정]	쉬, 아서라, 자...
		[+의미 고정]	군인 거총, 걸어총...
			동물 굶아, 두두, 쉬...
			유아 걸음마, 곤지곤지...
			집단 어기여차, 영차...
			개인 앓, 압...
			기타 레디고, 옛단쇠...

7)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감탄사는 879개 검색된다. 이 가운데 고어는 20개, 방언은 134개, 비표준어는 51개, 북한어는 91개, 역사어는 13개이다.

8) 분류 작업을 할 때 표출, 행동 유발 등으로 분류한 오승신(2006)의 방식에서 일부 도움을 받았다.

분류 기준				예
행동	부름	[-의미 고정]		야, 애, 어이...
		[+의미 고정]	가족 관계	고모부, 빙모님...
			동물	구구, 아나나비야...
			기타	복, 여보세요
	응답	[-의미 고정]		네, 예, 그래...
		[+의미 고정]		유유
	인사	[+의미 고정]		빠이빠이, 안녕...
	기타			뻑, 매롱...
기타 의도		[-의미 고정]		거시기, 그, 뭐...

아래에서는 감탄사의 하위 유형을 드러냄, 알림, 행동 유발, 행동, 기타 의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 3.1. 드러냄

화자의 느낌이나 인지 작용을 드러내는 것을 [드러냄]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감탄사의 용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유형이다. [드러냄]의 유형은 감정적인 것, 인지적인 것, 기원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쓰이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 의미가 고정적인 것과 쓰이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3.1.1. 감정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쓰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가 있다.

- (9) 3 : 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이죠::,  
 &아마 사람이라면 똑같은::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Q공상:소설에서 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Q> 그러는 걸 느꼈고,  
Q인간::의 잔인성에 아::저렇게 아주 처참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  
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일상대화)

- (10) 1 : 그게 사람 신체가.  
우리 젊을 때 솔직히 잘 못 느끼잖아.  
어릴 때 그런 거 느껴?  
2 : <@느낀다 나.@>  
1 : <vocal desc='웃음'>  
2 : <@빠져 빠져거린다.@>  
1 : 아이구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운동을.  
이 사람아.]  
2 : [비 올라 그러나 허리가 쑤신다 이제.]  
이불을 안 깔구 자서 허리가 아픈 걸 거야. (일상대화)

- (11) 「제발 믿어 주세요! 김 썬 정말 건량한 사람예요!」  
얼씨구, 하고 상덕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소설)

(9)에서는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한 가벼운 감탄을 드러내기 위해 ‘아’를 사용하였고, (10)에서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드러내기 위해 ‘아이구’를 사용하고 있다. (11)에서도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얼씨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사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2)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사 : [-의미 고정]

아, 아나, 아따, 아아, 아야, 아유, 아으, 아이, 아이고, 아이고나, 아이고  
머니, 아이고머니나, 아이고아이고, 아이구, 아이구머니, 아이코, 아이쿠,  
아휴, 악, 앓, 애, 애개, 애개개, 애개, 애개개, 애고, 애고고, 애고머니, 애  
고머니나, 애고애고, 애구, 애구머니, 애쿠, 애해, 앵, 야, 애, 어구머니,  
어따, 어마, 어마나, 어마뜨거라, 어머, 어머니, 어머머, 어와, 어휴, 어이,



이이구, 어이구나, 어이구머니, 어이구머니나, 어이쿠, 어쩜, 어휴, 억, 얼  
 씨구, 얼씨구나, 예, 예게, 예게게, 예구, 예구구, 예구머니, 예구머니나,  
 예구예구, 예그, 예그그, 예그나, 예그머니, 예기, 예꾸, 예라, 예이, 예이  
 그, 예이끼, 예잇, 예쿠, 예쿠나, 예쿠쿠, 예크, 예크나, 예키, 예헤, 예후,  
 예, 옛, 엉, 엉이, 예, 예기, 예끼, 오, 웅, 와, 와와, 우, 우아, 우아우아, 우  
 우, 움, 으아, 으악, 으음, 음, 이끼, 이끼나, 이야, 이야아, 이크, 이키, 이  
 키나, 쫓, 쫓쫓, 참, 체, 쳇, 치, 하, 하이고, 하하, 해, 허, 허허, 험, 험험,  
 헤, 행, 호, 호호, 후, 후유, 휴, 흠, 흠흠, 흥, 흥, 흥헝)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사류 가운데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는 것들  
 이 있다. 민요나 동요에서 흥겨움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문어에서  
 주로 쓰이는 것, 욕설 등이 그것이다.

(13) ㄱ. 니나노 닐니리야 닐니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태평가 후렴)

ㄴ. 달강달강 할아버지 서울길 가다가 (공주 민요, 달강달강)

(14) ㄱ. “도와주면 대신 나랑 연애히래?”

빌어먹을, 남자 친구의 우정어린 원조를 기대하다니. (소설)

ㄴ. 1 : 아까 나 오는데,,

너무 오다가 인제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배가 고파서 철판볶음밥이 먹고 싶어서 혼자 들어가서::볶음밥  
 을 먹고 딱 나왔다?

<vocal desc=‘들이마시는 숨’> 비가 억수로 오는 거다::<vocal  
 desc=‘웃음’>

비와 가지구 진짜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구 아이씨 쯤 기다릴까 하다가 늦= 쯤 늦게 오면은

뒤~ 시간 아깝구 그래가지구 그냥 왔다,

9) 오승신(2006 : 422)에서는 감탄사의 다른 특징으로 음성의 교체나 반복에 의해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을 들었는데, (12)의 예들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 말뭉치에 나타난 감탄사의 형태는 더 다양하여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형태도 많다. 전영옥(2009 : 257)에서는 구어 말뭉치에서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감탄사가 71%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바지 다 젖구. (일상대화)

(15) ㄱ. 아이고, 우리 영감쟁이가 드디어 미쳤구나, (소설)

ㄴ. 상을 당하면 왜 아이고 하는 곡소리를 낼까요? (인터넷)

(16) ㄱ. 희라, 우리 삼천리강산이 뉘 집 강산인고? (사전 제시 예)

ㄴ. “오호통재로다!” 하고 시작된 양 접장의 추도사 낭독이 동민들의 호느낌 속에서 끝나자... (소설)

(13)에서 나타난 ‘니나노’와 ‘달강달강’은 민요나 동요에서 후렴 소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쓰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14)에서의 ‘빌어먹을’과 같은 욕설 역시 고정적인 쓰임으로 볼 수 있다. 사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즘 주로 사용하는 ‘아씨, 아이씨, 에이씨’ 등도 욕설류로 감탄사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15ㄱ)의 ‘아이고’는 화자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널리 사용이 되는 것이지만, (15ㄴ)의 ‘아이고’는 곡소리로 사용되어 그 쓰임이 한정되어 있어 (15ㄴ)은 [+의미 고정]으로 볼 수 있다. (16)에서의 ‘희라’와 ‘오호통재’는 문어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이고, 현대가 아닌 과거의 시간을 배경으로 할 때 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감탄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사 : [+의미 고정]

ㄱ. 노래 : 데루화, 어와, 어우아, 어우하, 어화, 예라, 예루화, 예헤, 예헤야, 예헤영, 지화자, 니나노, 상사뒤야, 상사뒤요, 상사디아, 어리얼씨, 어절씨구, 허허등등, 얼싸, 얼썬,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나절씨구나, 얼씨구절씨구. 어등등, 어허등등, 어화등등

ㄴ. 욕설 : 난장맛을, 난장칠, 네기, 네미, 넌장, 넌장맛을, 넌장칠, 떡을할, 배라먹을, 빌어먹을, 시, 상, 씨, 염병할, 엔장, 오라질, 우라질, 욱시랄, 제기랄, 제미, 제미불을, 제밀할, 젠장, 젠장맛을, 젠장칠, 제바리(불만)

ㄷ. 장례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애고애고, 어이어어

- ㄹ. 문어체 : 시재시재, 시호호, 오호, 오호애재, 오호통재, 오홉다, 오  
회, 차호, 차홉다, 회라, 아소라, 두어라, 애재, 왕배야덕배야, 아  
카사니, 알라차, 잘코사니
- ㅁ. 뱃사람 : 어기야, 어기야디야, 어야디야, 어여디어, 예야디아

(17ㄱ)은 동요나 민요 등에서 흥겨울 때 장단을 맞추는 소리로 주로 나타  
나며 후렴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7ㄴ)의 욕설류는 상대방에 대한 불평이  
나 불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고, (17ㄷ)은 장례식에서 슬픔을 드러내는  
고정된 소리이며, (17ㄹ)은 문어적인 쓰임에서 나오는 고전적인 감탄사류이  
다. (17ㅁ)은 뱃사람들이 노를 저으며 흥겨울 때 내는 소리이다. (17)에 제  
시된 감탄사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그 쓰이는 상황이 제한적이어서  
의미도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 3.1.2. 인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화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드러나는 감탄사들  
이 여기에 속한다.

- (18) 눈 딱 부릅뜨고 버터 서서 그럴 수도 있단니? 거참 맹랑한 녀석이  
네. (소설)
- (19) “그 친구 있었으면 여기 어디서 같이 농사지으며 살자고 했을 텐  
데.”말해놓고 나서 나는 아차 싶었다. (소설)
- (20) 3 :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일본이 먼저 한 거 갖다가 우  
리나라가 베꼈기 때문에 먼저 ...
- 1 : 어떤 거를요?
- 3 : 밑에 방송자막 나가는 거.
- 1 : 아하 방송자막 [나가는 거 아야.]
- 3 : [1그게 일본에서 먼저] 해 갖고 우리나라에 베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떤 한 방송사였는데 요즘 지금은 다 쓰고 있[2장

## 아.2] (일상대화)

(18)에서의 ‘거참’은 상대방에 대한 어이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19)에서의 ‘아차’는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갑자기 깨닫고 내는 소리이며, (20)의 ‘아하’는 상대방의 발화를 듣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아 내는 소리이다.

## (21) 인지 작용을 드러내는 감탄사

ㄱ. [-의미 고정] 그래, 그런, 고런, 저런, 이런, 조런, 까짓, 까짓것, 세상에, 천하에, 맏소사, 거보시오, 거봐, 거보라, 거참, 그것참, 아이참, 예참, 다이를까, 깜짝이야, 머, 무어, 뭐, 아<sup>10</sup>, 아니, 아니참, 아무려니, 아무리, 아뿔싸, 아야, 아주, 이쥬, 아차, 아차차, 아하, 알라, 알라차, 어, 어디, 어렵쇼, 어렵소, 어뿔싸, 어어, 어일싸, 어쥬, 어쨌면, 어쥬, 어허, 어험, 얼레, 영, 예, 예뜨거라, 예라, 예이, 예이, 오호, 웬다, 웬다구나, 웬아, 웬지, 윈, 윈걸, 으흠, 이렇지, 저렇지, 조렇지, 정말, 좋아, 참, 참말, 천제, 천지에, 하뿔싸, 허뿔싸, 카, 커, 험, 험, 험

ㄴ. [+의미 고정] (좋다, 잘했다) 만세, 지화자, 브라보, 야호(문어체) 내괘<sup>11)</sup>

(21)에 제시된 감탄사는 화자의 인지 작용을 드러낸 것이다. 그 쓰임이 제한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미 고정]의 유형들이어서 담화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0) 기쁨, 슬픔, 놀람 등을 나타내는 ‘아’는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사이고,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인 ‘아’는 인지 작용이 드러난 것이다.

11) 흥겨움을 드러낼 때의 소리인 ‘지화자’는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사이고, ‘잘했다, 좋다’의 뜻으로 외치는 소리인 ‘지화자’는 인지 작용을 드러내는 감탄사이다. ‘내괘’는 ‘내 그럴 줄 이미 알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1.3. 기원

기원을 나타내는 감탄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2) 1 : 이 시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 : 아멘,

1 :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 아멘 (강의)

(23) ㄱ. “유대의 왕 만세!” (소설)

ㄴ. 그는, 집에 도착한 다음에야 겨우 입을 열어 작은 소리로 중얼  
 거렸다. “만세.” (소설)

(22)에서 설교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인 ‘아멘’  
 과 (23 ㄱ)의 축복의 뜻으로 하는 ‘만세’는 기원을 드러내는 감탄사이다.<sup>12)</sup>  
 기원을 나타내는 감탄사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기원을 나타내는 감탄사 : [+의미 고정]

ㄱ. 감기가 물러가기를 바라는 소리 : 개취네썬, 에이썬

ㄴ. 종교적인 기원 : 나무아미타불, 아멘, 아민

ㄷ. 경축의 표현 : 만만세, 만세

(24)의 기원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그 쓰이는 상황이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12) 그러나 ‘만세’가 기원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23 ㄴ)과 같이 ‘잘 됐  
 다, 좋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는 인지 작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3.2. 알림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는 소리나 말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을 알려 잠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다. 행동 유발과 구분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행동에 수반되는 소리나 말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5) 앞으로 살아 나갈 길에 대해서 의논들을 하고 있으려니까 느닷없이  
에헴 에헴 하고 밖에서 두어 번 헛기침 소리가 나더니 슬며시 방문  
이 열리었다. (인터넷)

(26) 예, 여기는 김충식, 잘 들립니다, 오오바. (소설)

(25)에서는 인기척을 내서 방에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내는 ‘에헴’이 사용되었고, (26)에서는 무선 통신에서 자신의 말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로 ‘오버’가 사용되었다. ‘에헴’의 경우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이 되어 [-의미 고정]의 유형이고, ‘오버’는 쓰이는 상황이 한정되어 있어 [+의미 고정]의 유형이다.

(27) 알림을 나타내는 감탄사

- ㄱ. [-의미 고정] 애헴, 에헴, 였네, 였다, 였소, 였습니다
- ㄴ. [+의미 고정] 고수레, 곤두곤두, 나혜, 달강달강, 덕, 때꼭, 명군, 시장시장, 심봤다, 싸구려, 아이스케키, 야호, 어뜨무려차, 오버, 워대, 이우아, 장군, 쭈쭈, 치, 평, 허허이루후어, 홀라

(27)에 속하는 감탄사들은 우선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다.

### 3.3. 행동 유발

어떤 대상에게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사용한 감탄사로 그 대상은 사람이나 동물이 된다.

(28) 1 : 그래서 이제 동네 애들을 다 데리구

<Q잔 나만 믿구 따라와.Q> (독백)

(29) “따지겠어요 가서 그놈이 얼마나 저질의 인간인지 알게 해 주겠어요.”

“아서라. 네 마음은 알지만, 너 혼자는 무리야.” (소설)

(30) 17세의 여고생들은 할머니뻘 선배들에게 『언니들 화이팅!』을 외쳤다. (신문)

(28)에서는 동네 아이들에게 자기를 따라 올 것을 권하고 재촉하기 위해 ‘자’를 사용하였고, (29)에서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기 위해 ‘아서라’를 사용하였다. (30)에서는 힘을 내라는 의미로 ‘파이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감탄사를 쓰이는 상황이 고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행동을 유발하는 감탄사 : [-의미 고정]

가만, 쉬, 쫓, 아서, 아서라, 악, 앙, 어흥, 예라, 예비, 자

(32) 행동을 유발하는 감탄사 : [+의미 고정]

1. 군인(제식 훈련) : 거총, 걸어총, 검사총, 기준, 꽃아칼, 뒤로돌아, 뒤로돌아가, 뛰어가, 모여, 무릎싸, 무릎앉아, 바로, 바른걸음으로가, 반걸음으로가, 받들어총, 번호, 서, 서서싸, 세워총, 쉬어, 쏘아, 싸, 앉아, 앉아싸, 앞에총, 앞으로가, 어깨총, 엎드려뻥쳐, 옆

드러췌, 열중쉬어, 우로나란히, 우로봐, 우로어깨총, 우향앞으로  
가, 우향우, 일어서, 제자리에서, 좌로어깨총, 좌향앞으로가, 좌향  
좌, 주목, 지어총, 차려, 차렸, 편히쉬어, 편히앉아, 헤쳐<sup>13)</sup>/경례,  
기립, 앞으로나란히, 착석

ㄴ. 동물 : 굽아, 두, 두두, 뒤뒤, 뒤뒤뒤, 드레드레, 들보, 쉬, 쉬이,  
어디, 어디여, 와, 와와, 왕, 요개, 우아, 우아우아, 우어, 우어우  
어, 우여, 우여우여, 우우, 워, 워워, 워여, 이개, 이라, 이러, 이러  
찌찌, 저라, 죄죄, 죄죄반반, 찌, 찌찌, 후여, 후여후여, 휘이, 휘  
여, 이괴<sup>14)</sup>

ㄷ. 유아 : 가동가동, 걸음마, 걸음마찍찍, 곤지곤지, 까꿍, 도리도리,  
등개등개, 등등, 따로따로따따로, 부라부라, 부바, 섬마섬마, 쉬,  
쉬야, 아웅, 아웅, 어부바, 어비, 얼싸등등, 웅가, 자장자장, 죄암  
죄암, 뽀뽀, 쥐엄쥐엄, 질라래비훅훅, 짹짹짜짜공

ㄹ. 집단(자신 포함) : 아아, 어기여차, 어기영차, 어사와, 어어, 어여  
로, 어여차, 어허라달구야, 어허야어허, 에여라차, 여차, 영차, 영  
치기, 영치기영차, 와, 와와, 우아, 우아우아, 워어호, 이여차, 이  
영차, 치기영

ㄹ. 개인(자신만) : 아카사니, 앓, 압, 앓, 이커서니

ㅂ. 기타 : 대려라, 부라, 레디고, 액션, 컷, 무에리수에, 이리연초, 옛  
단쇠, 복스, 드오, 지오,<sup>15)</sup> 파이팅

행동을 유발하는 감탄사류들은 [+의미 고정]으로 쓰이는 것이 상당히  
많다. 주로 제식 훈련에서 군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32ㄱ), 동  
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32ㄴ), 유아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13) 이 가운데 총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제식 훈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체육 활동이나 운동선수들의 훈련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14) '이괴'는 고양이나 도둑을 쫓을 때 지르는 소리로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쓰이는 말이  
다.

15) '대려라'는 노를 저을 때 노를 당기라는 뜻이고, '부라'는 대강에서 풀무질을 하는  
데 불을 불라는 뜻이며, '레디고, 액션, 컷'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서 사용하는 것  
이고, '무에리수에'는 돌팔이장님이 점을 치라는 소리이고, '이리연초'는 심마니들의  
쉬자는 신호이고, '옛단쇠'는 옛장수가 옛을 사라는 소리이며, '복스'는 권투 경기에서  
계속 진행하라는 구령이다. '드오, 지오'는 종료 제례에서 지휘할 때의 구호이다.



하는 것(32ㄷ), 자신이 포함된 집단에 힘을 내자고 하는 것(32ㄹ), 자신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것(32ㄱ), 기타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32ㄴ) 등이 있다.

### 3.4. 행동

부름이나 응답 등 화자의 행위를 드러내는 감탄사가 있다.

(33) 1 : 야 그거 언제 개봉한대?

2 : 칠월 중순.

1 : 칠월 중순?

2 : 응.

(34) 젊은 부인이 다급하게 끼어들어 말했다.

그래요, 여보 저분은 학교 선생님이시래요

(35) 1 : 우리 일곱 명이야?

3 : 어.

1 : 한 명 더 들어오지 않을까?

3 : 아니 일곱이야.

(33)의 ‘야’와 (34)에서의 ‘여보’는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고, (33)의 ‘응’과 (34)의 ‘그래요’와 (35)의 ‘어, 아니’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유형을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보고 부름, 응답, 인사, 기타 행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겠다.

(36) 부름

ㄱ. [-의미 고정] : 아가, 야, 애, 어이, 여, 여보, 여보게, 여보게나, 여보세요, 여보쇼, 여보시게, 여보시오, 여보십시오, 여보아라, 여보시다, 여봐, 여봐라, 여봐요, 엽쇼, 이보, 이보게, 이보시오, 이보

우, 이봐, 저보게, 저보세요, 저보시오<sup>16)</sup>

ㄴ. [+의미 고정]

- 가족 관계 : 고모부, 고모할머니, 고모할아버지, 빙모님, 새아가, 여보, 여보게, 외숙부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작은올케, 작은할머니, 작은할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질부,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언니, 큰오빠, 큰올케, 큰할머니, 큰할아버지, 큰형, 할머니, 할머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형부, 형수님
- 동물 : 구구, 꾸꾸, 네미, 아나, 아나나비아, 오래오래, 워리<sup>17)</sup>
- 기타 : 복, 여보세요<sup>18)</sup>

(37) 응답

- ㄱ. [-의미 고정] : 네, 예, 예예, 예이, 옛, 그래, 고령지, 그래, 그래그래, 그러게, 그럼, 그렇지, 아무려나, 아무려면, 아무렵, 암, 오, 오나, 오나오나, 옴소, 요령지, 으음, 으응, 음, 응, 응응, 정말/글쎄, 글쎄다, 글쎄요, 아냐, 아뇨, 아니, 아니야, 아니요, 예, 천만 예/머?, 무어?, 뭐?, 엉?, 왜?, 응?, 네?, 예?, 앙?
- ㄴ. [+의미 고정] : 유유(문어체)

(38) 인사 : 빠이빠이, 안녕

(39) 기타 : 때기, 때끼, 땡, 메롱, 알나리깎나리, 용용, 췌, 췌췌<sup>19)</sup>

(36)은 부름, (37)은 대답, (38)은 인사, (39)는 혼냄, 약올림, 위로 등의 행

16) [-의미 고정]의 ‘여보’, ‘여보게’ 등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고, [+의미 고정]의 ‘여보’는 부부 사이에 서로 부르는 말이고, ‘여보게’는 사위를 부르는 말이다. 역시 [-의미 고정]의 ‘아가’는 아기를 부르는 말이고 [+의미 고정]의 ‘아가’는 며느리를 부르는 말이다.

17) 구구나 꾸꾸는 닭이나 비둘기, 네미는 송아지, 아나와 아나나비아는 고양이, 오래오래는 돼지, 오요요는 강아지, 워리는 개를 부르는 소리이다.

18) ‘복’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소리이다. ‘여보세요’는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그 쓰이는 상황이 제한적인 것이다.

19) ‘때기, 때끼, 땡’은 혼내는 소리이고, ‘메롱, 알나리깎나리, 용용’은 약올리는 소리이며, ‘췌, 췌췌’는 아픈 곳을 만지며 위로하는 소리이다.

위를 나타낸 것이다.

### 3.5. 기타 의도

자신의 감정이나 인지 작용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행위의 알림, 행위의 유발, 자신의 행위 등으로 구분한 감탄사 분류에서 별도의 의미를 가지는 감탄사를 기타 의도로 분류하였다. 기타 의도에는 다음 발화를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하거나 발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있다.

- (40) 1 : 아!~ <vocal desc='목청가다듬는소리,음'>

지난주에,

우리가 군자불기라는 말을 했죠? (강의)

- (41) 2 : 저기~ 뭐야~ 에피소드 원에서두 그~ 일본 약간 퍽한 그런 게 좀 나오지,

2 : 어 의상 약간 동양적인 의상 나오지.

1 : 응 거기서 나왔었지.

(4.3)

하기야 뭐~ 일본 애들이 워낙 뭐~ 경제적으로 <vocal desc='혀 차는 소리, 찌'> 탄탄하니까.

2 : 돈이 되잖아 개네들은. (대화)

- (42) 비행기표를 공항에서 발매할 일이지 여기서 발매한다니 그게 말아  
이나 될 일입니까? 어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셜)

(40)의 ‘아’와 (41)의 ‘저기, 뭐야, 그, 뭐’ 등은 다음 발화를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42)의 ‘어디’는 자신의 발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감탄사는 감정이나 인지 작용을 드러내기 위한 감탄사가 담화상에서 새로운 의미 기능을 가진 것이다. 이들을 다

른 유형의 하위에 넣기보다는 1차적인 어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담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기타 의도로 처리하였다.

(43) 기타 의도를 드러내는 감탄사

가서, 가설랑, 가설랑은, 거시기, 거시키, 그래, 글썄, 머, 머시, 뭐,  
뭘, 아, 어, 어디, 예, 예에, 음, 이, 자, 저, 저거시기, 저기

(43)은 시간 벌기, 강조하기, 주의 끌기 등의 담화 의미를 가지는 감탄사들이다.

####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머뭇거림의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개별 감탄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말뭉치에 나타난 감탄사의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유형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하였다.

그동안 감탄사는 ‘화자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나타낸 말’이라는 것보다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점’이 범주의 특징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말뭉치 분석을 통해 소위 감정적 감탄사류가 의지적 감탄사나 형식적 감탄사에 비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빈도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감탄사가 독립어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품사임에도 불구하고 감탄사로 사용이 되는 것에는 사용 빈도가 크게 작용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앞선 논의들에서 감탄사를 청자를 상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중심

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주로 감탄사의 연구를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연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실제로 감탄사는 구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탄사를 청자를 상정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감탄사의 유형을 정리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에 나타난 감탄사를 정리하고, 실제 말뭉치에 나타난 의미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감탄사의 유형을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인지 작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청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것,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것,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 외의 것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곧 드러냄, 알림, 행동 유발, 행동, 기타 의도로 구분하여 분류해 보았다. 또한 이를 일반적인 것과 쓰이는 상황이나 의미 기능이 고정된 것을 따로 분리해서 살펴보았다.

## 참고문헌

- 김문기(2011), “품사 통용의 감탄사 처리 방안 연구”, 우리말 연구 28, 우리말학회, 129-152쪽.
- 남기심·고영근(1885, 1993),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신지연(1988), “국어 간투사의 위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2001), “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 의미학회, 241-259쪽.
- 오승신(1997),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말 2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3-86쪽.
- 오승신(2006), “감탄사”, 『왜 다시 품사론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정애(2011), “NSM에 기초한 국어 간투사의 의미 기술”, 한국어 의미학 36, 한국어 의미학회, 313-333쪽.
- 전영옥(2006), “국어 어휘의 사전 기술 방법”, 한국사전학 8, 한국사전학회, 101-144쪽.
- 전영옥(2009),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감탄사 연구”, 텍스트언어학 27, 한국

텍스트언어학회, 245-274쪽.

정인승(1956), 『표준고등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1-83쪽.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Ameka, F. K.(1992), "Interjections : The universal yet neglected part of speech", *Journal of Pragmatics* 18, 101-118.

Kryk, B.(1992), "The pragmatics of interjections : The case of Polish no", *Journal of Pragmatics* 18, 193-207.

## 사전

표준국어대사전([http : //www.korean.go.kr/09\\_new/index.jsp](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 말뭉치 자료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2007),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 〈ABSTRACT〉

##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Exclamations in Korean Language

Jeon Young-ok

This study aims to classify various categories of Korean exclamations in Korean language. The previous and existing studies have divided exclamations into categories such as 'emotional exclamation', 'willful exclamation' and 'expression of hesitation'. Such classification has a drawback of not being able to explain the meaning of individual exclamations properly; thus this study attempts to undertake the project of categorizing them based on the realization aspect of exclamations present in corpus.

First of all, the drawbacks in the previous studies are analyzed. In those studies, the exclamations had a characteristic in the category of 'being used independently in a sentence' rather than as 'words expressing the emotion or willpower of the speaker'. However, through the analysis of corpus, it was verified that there are many more emotional exclamations than willful and formal exclamations in terms of category and frequency. Therefore, it is ascertained that even if exclamations have a strong characteristic as independent part of speech, they are used as exclamations with reasons.

Also, the previous studies were carried out centering on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exclamations presume the listeners, but such viewpoint is resulted from researches through references present in written corpus for the study of exclamations. Actually, exclamations are used in colloquial sentences where a

listener exists. Therefore, it is not correct to classify the exclamations according to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re is a listener.

In order to arrange the categories of exclamations, all kinds of exclamations in the dictionary were studied. And the classification is carried out with the criteria such as expression, impartment, action induction, action and other intention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word. Also, the general usage and fixed function of meaning in certain situations are separated to be examined independently.

- 주제어 : 감탄사, 간투사, 담화 표지, 문어 말뭉치, 준구어 말뭉치, 구어 말뭉치, 빈도, 의미, 기능, 유형, 감정적 감탄사, 의지적 감탄사, 머뭇거림류, 드러냄, 알림, 행위 유발, 행동  
exclamations, interjections, discourse markers, written corpus, semi-spoken corpus, spoken corpus, frequency, meaning, function, type, classification, emotional exclamation, willful exclamation, expression of hesitation, expression, impartment, action induction, action

---

**전 영 옥**

소 속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전자우편 : yojeon@smu.ac.kr

---

논문 접수 : 2012. 10. 30.

논문 심사 : 2012. 11. 30.

게재 결정 : 2012. 12. 05.

---